

발행처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 발행인: 김용일 전화: 02-6977-6503 팩스: 0505-085-6503

증권회사 최초 자기자본 10.5조 달성!

합병 이후 우리는 5년간 보여줬다!!!

이제는 회사가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

노동조합은 2022년 1월 19일 오후 3시 노조위원장과 경영지원총괄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말 조직개편과 희망퇴직 이유로 잠시 중단되었던 교섭을 재개하였고 “2021년 임금 협상, 복지처우 확대, 신인사제도 개편, CS상담직군의 채무적 조항 개선, 유니온 샵, 노사 상생경영 실천 등” 구체적인 안(案)을 회사에 제시하고 회사측의 생각과 노동조합의 생각을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타사대비 부족한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회사에 표명하였습니다.** 회사는 오늘날의 회사로 성장하기까지 높은 성과급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당사는 성과급을 통해 타사보다 낮은 임금을 만회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금액에 따른 임금 인상 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조합이 바라는 기대치 만큼 가능할지 여부는 좀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사의 현재 수익 구조를 보면 합병전의 수익구조와 확연히 다르며 자본을 통해 이루는 수익의 근간은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이룬 성과 이기에, 함께 이룬 성과는 임금을 통한 공평한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며 합병부터 오늘날 자기자본 10조 및 세전이익 1조를 넘기 까지 우리 직원들의 승고한 열정과 노고를 반드시 임금에 반영시켜 협상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현재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증권 업종본부는 2021년 임금 협상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우리와 같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타사보다 빠른 임금 협상을 진행한 탓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021년 당사 실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그에 맞는 임금 인상안을 요구하고 협상에 임하여 1분기를 목표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성장에는 반드시 직원성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바라볼 때 회사가 선택한 직원을 회사 방향에 따라 토사구팽 시키거나 타사로 이동하기 위해 거쳐가는 수단의 회사로 전락되지 않도록, 금번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해 반드시 회사는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반격!

조합원 총단결로 2021” 임단협 쟁취하자!!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

앞으로 교섭관련 내용은 카카오톡(공감나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